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변화와 평가



글 김문선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조사연구팀장 ggamon@kimi.or.kr

전체 고용인구의 87%,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하는 295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이자 소비자와의 접점에 위치하여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악화, 내수 경기의 침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산업의 취약성과 체질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IT와 기술진보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

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지원정책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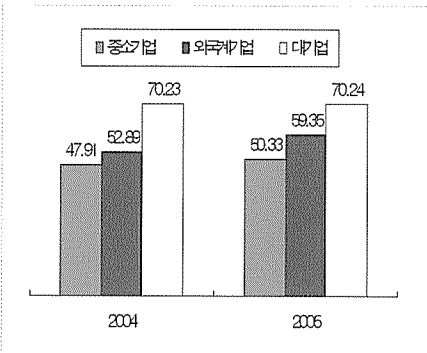
「2005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12.)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평균 50.33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의 71.7% 수준이며, 그동안의 업무효율화 단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조직전략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화를 통한 가시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IT 활용과 업무 적용범위가 기업 내에서 기업 간 및 조직 간

으로 확대되면서 정보화를 통한 업무효과가 더욱 확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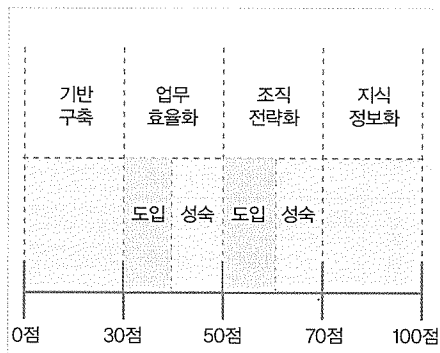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별·지역별 정보화 수준은 평준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규모별·매출규모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규모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소기업(5~49인)은 45.68점, 중기업(50~299인)은 59.3점, 중견기업(300인 이상)은 70.65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질적 내실화 추진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발적·능동적 정보화 추진으로의 변화가 모든 산업과 부문에서 고른 향상을 보인 2005년 정보화 수준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환경²⁾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활용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EO 의지나 거래기관(기업)의 요구로 도입, 추진되었던 정보화가 미래에 대한 대응과 업무효율성 향상 등의 자발적, 능동적 동기로 인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전략에 긍정적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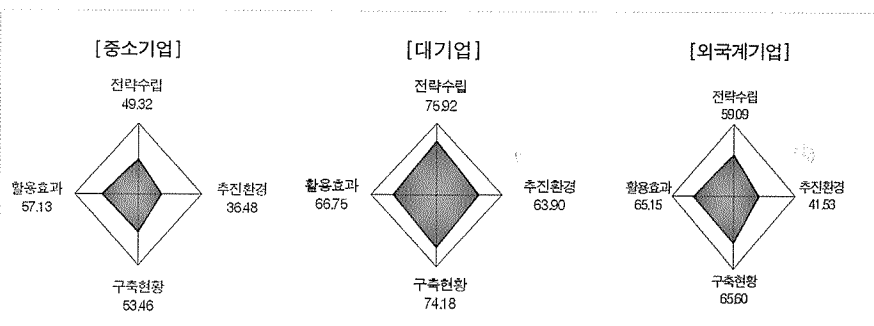
〈그림1〉 연도별 정보화 수준 차이



〈그림2〉 중소기업의 정보화 발전단계



〈그림3〉 중소기업과 외국계기업, 대기업과의 비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2001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산업의 IT화가 범부처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관련 부처에서는 경쟁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7월 경제정책 회의에서 부처간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정책 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부는 ASP³⁾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및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을, 산업자원부는 3만 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되었다. <표1 참조>

우선 정보통신부의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까지 7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빌려 쓰는 중소기업 정보화 (Rent IT)'라는 구호아래 인기리에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해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4년 말 기준 37만개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1/3인 100만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등을 통해 2003년까지 1,103억원(정보화촉진기금 : 640억원)을 투입하여 총 30,932개사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그 중 1,755개사는 업그레이드까지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2003년까지 658억원으로 총 3,500여 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37개 업종 및 지역의 중소기업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짧은 기간동안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 및 추진수준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눈부신 성장세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달성된 사상 초유의 성과는 많은 시행착오와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하였다. 우선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용 정보화 솔루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실제로 IT 렌탈방식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조사 기관에 따라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의 30~65%가 절감되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⁴⁾ 그리고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ERP 도입, 협업기반 구축, 업종 및 지역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정보화를 위한 자금과 인력 부족, 마인드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정보화 추진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어,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과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은 절실한 실정이다.

주요 부처별 중소기업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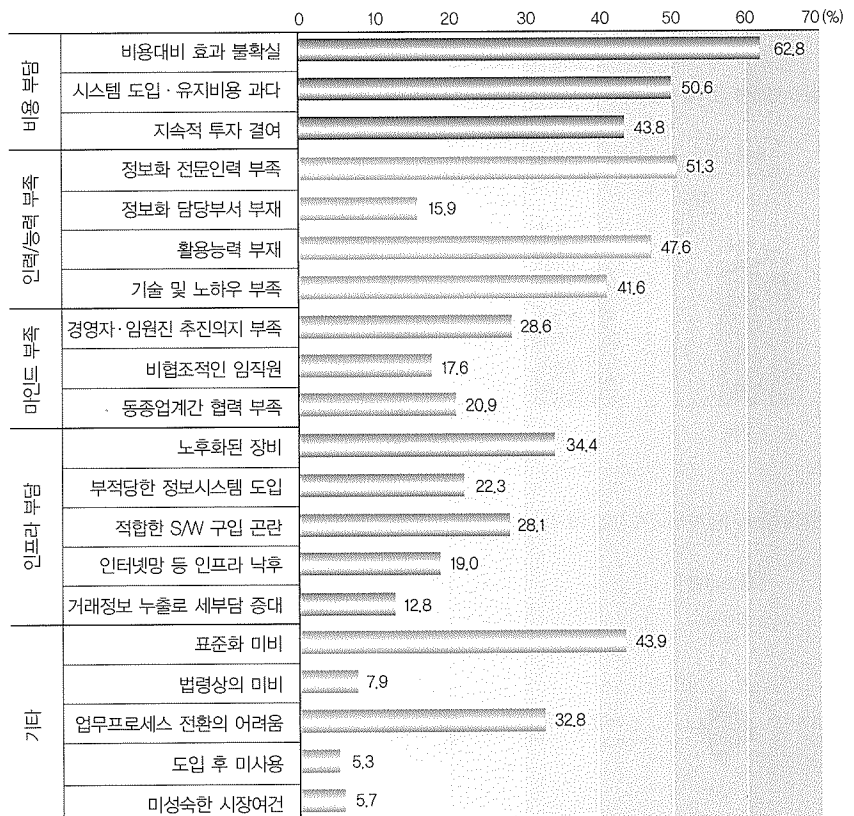
비전 및 전략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정책은 2001년 IT화가 범부처적 관심대상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정보시대의 기업환경 변화, IT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환경과 함께 정보화지원환경(지원 패러다임

<표1> 부처별 주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구분	중사자수	지원사업
소기업	1~49명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정통부)
중기업	50~99명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산자부)
	100~299명	업종별 ASP 보급·확산 (정통부)
중견기업	300명~	자율추진

<그림4> 중소기업 정보화 저해요인



자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 2005.12

또는 비전, 전략 등)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중소기업이 IT 및 기술진보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영애로 요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지원체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혁신하고 있다. 특히 단체수계약, 고유업종 등 보호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부처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패러다임 및 비전, 전략 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12월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비전을 수립하여 열린 전자정부 구현 및 전산업 정

중소기업청의 200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본방향은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있다.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보화 촉진 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정보통신 비전인 'U-Korea' 실현을 위해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및 IT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IT 839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IT중소·벤처기업 인프라 조성에 291.2억원,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IT중소·벤처기업 육성에 136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는 e-비즈니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아시아 e-Hub로 도약하고자 'e-비즈니스 강국 2003'을 목표로 수립하고 중소기업 IT화를 통해 e-비즈니스 발전기반 강화, e-비즈니스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및 대기업과의 협업적 IT화 지원에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ERP 구축 600개사, 협업적 IT화 지원 300개사 등 총 1,300 여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하고, 이듬해 2005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ERP 구축 및 대·중소기업 협업적 IT화 등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140억원(520여 개 업체)을 지원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200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본방향은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재래시장 및 자영업자, 지방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그림 5〉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비전 변화

	정보화 비전	비 고
1999년	Cyber Korea 21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
2002년	e-KOREA VISION 2006	정보화의 질적 심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을 목표
2003년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정보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 제시

〈그림 6〉 산업자원부의 정보화 추진전략 변화

	추진전략	비 고
2003년	중소기업 IT화 등 e-비즈니스 발전기반 강화	·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
2004년	e-비즈니스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 기업활동에 IT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전자 상거래 활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및 산업B2B 지원(200억원)
2005년	IT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대기업과의 협업적 IT화	· 정보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 제시

지역간·기업부문간 균형발전 및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자 내용이다.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tailor-made policy)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2006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현황 및 특징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I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각 부처별 세부 지원방향 및 추진전략 또한 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있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부분적 지원과 예년 수준의 지원내용과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2006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지원사업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지원사업 수행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오프라인 체계에서 온라인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지원업무의 정보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도모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축소,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성과 극대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의 효익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현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

〈그림7〉 200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본방향

(자료 : 중소기업청)



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정보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 계획으로부터 사후운영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는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지원사업, 정보화 클러스터를 육성, 지원하는 업종별·지역별 정보화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총 280억원이 중소기업 815개사, 중소기업 재직자 6,000여 명, 7개 지역 및 8개 단체 등에 지원된다.

국민경제적 비중과 위치를 통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주요한 정책적 지원, 육성의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정책기조는 1970~80년대 보호·육성

의 대상에서 1990년대 이후 자율·경쟁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과 추진전략도 바뀌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부 지원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직접지원으로부터 간접지원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자생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의 근원적인 처방의 지원정책이 개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식정보시대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USers**

생산정보화	주요 내용	지원목표
생산정보화 (8,000)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현장 정보화를 통해 제조공장의 e-Manufacturing 구현 -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비 50% 범위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추가 개선지원은 25백만원 한도)	160개사
정보화혁신 전문기업 (4,500)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을 선정,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수립에서 구축 및 운영관리까지 일괄지원 - 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의 부담으로 先투자하고, 성공시 사후 지급 - 사업비 50% 범위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Trigger-Ring은 최대 2억원 한도내 지원)	90개사
정보화 경영체제 (5,400)	IMS 심사원 및 IT기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필요과제를 도출·지원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 IMS 인증부여 - 도출과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등 지원 - 사업비 75% 범위에서 기업당 15백만원 한도 지원	500개사
정보화 교육 (800)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화 교육 실시 - 2개 과정 : 산학연계교육 및 현장방문교육	6,000명
불법기술 유출방지 (500)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25개사
지역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2,100)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등을 지역 클러스터화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유도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정보화실습시설 등 - 클러스터당 3~4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7개지역
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3,200)	조합 중심의 정보화 거점마련을 위한 업종별 정보화 클러스터 육성 - 동일 업종 중소기업간 공동 구·판매 등 전자거래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 클러스터당 4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80% 이내)	8개단체
공정혁신지원 (3,500)	중소기업의 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 지원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사업비의 70% 이내, 1억원까지 지원	40개사

1)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 :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여 현
실태와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방안을 제시하
고자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조사사업임. 4개의 평가부문(정보화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
축현황, 활용효과)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 5대 산업(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정보통신)을 비교 평가함.

2) 정보화 추진환경 : 정보화 (전담)조직 편성, 정보화 (전문)인력 확보, 정보화 투자규모 및 비중,
정보화 교육실시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3)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또는 Provision) : IT설비와 SW를 소유할 필요 없이 인터

넷에 접속하여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빌려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최근 IT렌
탈이라는 용어로 확산되고 있음.

4) Gartner 50%, 톨리그룹 44~65%, 삼성SDS 30~40%

5)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간 연동체계 부재(중복 지원기업, 감리인 투입, 기 지원기업 등 검
색을 수작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소요시간 및 인력 낭비 초래), 정보화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업체
자료 활용 미흡(정부의 정보화 지원 이전?이후의 지원성과에 대한 자기평가 기능 부재), 중소기업
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확인방법 상이 등이 꼽힘.